

제11장

세째 환상: 막간 교회 장면(10-11장)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한 막간 장면이 소개된다. 이 막간 장면에서는 지상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이 막간 교회 장면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부분에서는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이것을 선포하라고 명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보여 준다. 둘째 부분에서는 복음 전파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작은 두루마리(10장)

힘 썬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나타나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명한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1절)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1장의 예수님의 형상을 재현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 천사가 예수님의 대행자인 것을 말해 준다.

힘 썬 천사로부터 한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 받은 요한은 그것을 받아 먹는다.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할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때 천사는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11절)고 명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한다.

요한이 먹은 그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매우 달았으나, 배에서는 매우 썼다(10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꿀 송이처럼 달다(시 119:10).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꿀 송이처럼 달기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단맛’과 ‘쓴맛’의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딤후 3:16) 매우 유익하다. 즉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 이는 말씀이 꿀 송이보다 단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중독되었던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쓴 맛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증거할 때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삶을 말한다. 즉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심한 거절과 박해를 당하였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 로마인들로부터 핍박과 귀양을 당하였다. 이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배에서는 매우 쓰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힘 켜 천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7절)고 선언한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다.

2. 두 증인(11장)

막간 장면의 둘째 부분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힘 쉰 천사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1절)고 명한다. 성전 측량은 에스겔 40-42장의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한다.

뜻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그가 동쪽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겔 40:3,6)

한 사람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성전을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쌓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한 이유이다. 성전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힘 쉰 천사는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2절)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보컴은 ‘성전과 성전 안’은 성도들의 ‘내적인 삶’을 의미하며, ‘성전 바깥 마당’은 성도들의 ‘외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내적인 삶은 성도들의 영적 부분을 말하며, 외적인 삶은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보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적인 부분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박해’를 말한다. 그런데 힘 썬 천사는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기간을 1,260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3절).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에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요한이 성전 측량을 다 마치자, 힘있는 천사는 두 증인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삼 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소개한다(4절).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1:20). 이러한 의미로, 두 증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증인을 두 명으로 소개한 것은, ‘둘’은 ‘증거’ 또는 ‘증인’을 상징하기에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힘있는 천사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5-6절)

“입에서 불이 나와서”라는 표현은 선지가 엘리야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병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병사들을 태워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는 표현은 아합 왕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막아버린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거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것은 모세가 출애굽 할 때 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을 포함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사건을 상기시켜 준다. 애굽에 행한 열 가지 재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는 두 증인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로서,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인 것을 시사한다.

교회는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한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지만,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될 것을 교훈한다. 그리고 두 증인은 무저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7절),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권력을 상징한다. 즉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일로 인해 국가권력의 탄압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반 동안 매장되지 않은 채 방치하게 된다(9,11절). “3일 반”은 ‘3년 반’ 또는 ‘1,260일’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박해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3일 반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3일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두 증인은 세상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11-12절).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로 인하여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결국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사역한 결과는 무엇일까?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12절)

이 장면은 두 증인이 하늘에 올라간 후에 땅에 지진으로 7,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7,000명은 완전수인 ‘7’과 ‘1,000’이 곱해진 숫자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7,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자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두 증인이 전한 복음 증거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에 대한 효과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었다(9:20-21).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수록 마음을 더욱 강박케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두 증인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세상의 핍박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다.

3.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5절)라는 큰 음성들이 난다. 하나님은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시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 최후의 심판인 것을 말해 준다.

최후의 심판 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며 살았던 세상은 심판 받아 멸망하게 되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할 것이라’는 큰 음성을 들은 24장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쁘게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11:17)

여기에 쓰여진 ‘왕 노릇한다’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이다. 이 시제는 ‘하나님이 친히 왕 노릇하셨고, 또한 왕 노릇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대에 하나님은 마땅히 왕 노릇 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도 왕 노릇하고 계시며, 세상은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교훈한다.

이런 이유로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잠깐 사용하신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원치 아니하는 환경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상의 모든 것 즉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자들, 우리의 형편, 심지어 사단의 세력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존재케 하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